

기도의 동역자님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기도의 동역자님들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있는곳도 갑자기 더위가 와서 저는 얼굴 전체와 목에 땀띠로 인해 붓고 빨갛게 되어 열흘 째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DTS 학생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후 저희들은 뉴코리아 섬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섬기며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며 그곳의 상황과 어떻게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나누어 주셔서 북한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 하시며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여시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DTS 강의기간 동안 학생들 각자안에 새롭게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 2, 딸 1 를 둔 가정으로 중국에서 근 20 년을사역해온 가정입니다. 지난 1월에 중국 정부로 부터 추방당한 후 기도가운데 3월에 시작한 저희 DTS 훈련에 오게 되었습니다. 12 주 강의기간을 통해 이 가정을 만지시고 치유 하시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며 감사드렸습니다. 사역하는 일로 인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가 소홀해 지고 서로에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한번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하심가운데 회복되어 자녀들과 함께 사역자의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도 오래전 훈련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함께 DTS 훈련사역을 섬기면서 이 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8 주간 터키와 그리스로 전도여행을 갔던 전도여행 팀들이 돌아와 디브리핑을 하며 그곳에서 팀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듣는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팀들은 땅밋기 기도와 터키에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난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었고, 그리스에서는 노방전도와 성경배급 하는 일을 하며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나누어 주기위해 하루 10 시간 이상 많은 지역을 걸어다니며 한 가정 한 가정 마다 성경을 나누어줄때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 가정, 한 사람 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성경을 주기위해 산골짜기도 마다하고 다니며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도여행중 강의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8월 5일 부터 144 시간 (24X7) 연속 예배와 기도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부터 영어로만 하는 DTS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희 144 시간 연속 예배와 기도시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그리고 영어 DTS 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맡겨진 사역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 144 시간 예배와 기도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 ~ 9 월 DTS 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지도록
- ~ 제가 주님앞에 늘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 할 수 있도록
- ~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 다음 사역을 위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 ~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

2018년 8월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종      임 춘 옥 선교사 드림